###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분야에 속한 각 학문을 연구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기독학자로서 해부학과 재활학을 연구하는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연구한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기독학자가 해부학을 연구한다고 결과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 연구나 분자생물학 실험, 인체운동학 등을 통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할 때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잠언 16:3)고 말씀한다. 신앙을 가진 해부학자와 생리학자라면 그 연구를 통해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는 학문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학문이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를 연구하는 것은 각 영역에 소명을 받은 학자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다만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자신의 연구 분야가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연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큰 그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신앙과학문〉 18권 4호(p.107-108)을 참조.)

해부학이나 생리학 등 기초의학 연구는 창조 당시의 온전함에서 벗어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인체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생명의 신비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병리학을 연구하는 기독학자라면 질병이 인간의 원죄에서 기원했음을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인체가 죄로 인해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창조세계 전반에 걸친 훼손이 병의 인자임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보건환경과 환경의학은 타락 이후의 자연 환경과 인위적, 사회적 환경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건위생에 적합한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임상의학은 환자의 증상을 치료하기보다 포괄적이고 전인적으로 접근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호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봄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환자의 영적회복을 돕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 될 것이다.

### 절반의 성공이 아닌 온전한 성공을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보건의료 분야의 교육과 연구는 보건의료 선교사역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의료선교사의 헌신으로 시작되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의 의료현실을 바라볼 때,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지 못한 기독교 학문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절반의 성공인 셈이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실패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설대위 선교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운 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종되었으며 의학은 남았으나 성스러운 임무는 사라져간다."고 한탄하였을 것이다. 절반의 성공 아니 실패의 원인은 바로 보건의료분야에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기독교 학문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었다가 세속화된 국내외 대학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범아시아아프리카대학협의체(PAUA)에 소속된 대학이나 의료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이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대학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지원** 현재 백석대학교 교수로 기독보건학회 총무이사와 기독학문연구회 의료보건분과장으로 섬기고 있다. 연세대학교 재활학과에서 공부하였고, 연구분야는 재활치료에 의한 형태학 및 분자생물학적 변화이며 최근 보건의료분야의 기독교학문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1997년 12월 성산 장기려 선생을 기념하여 설립되었다. 기독교 윤리 전통에 바탕을 두고 생명윤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의료계와 이 세상에 올바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 기관이다. 최근 베리칩 논쟁이 가열되면서 이를 심층 분석하고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그중 정신의학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베리칩 논쟁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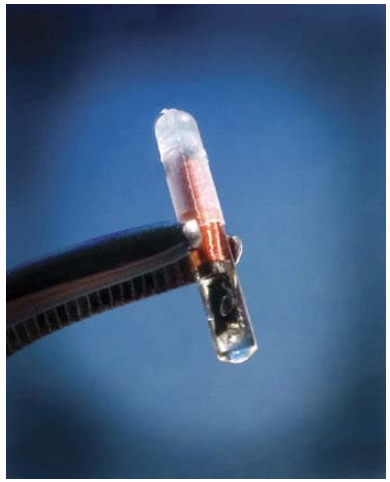
#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베리칩 논쟁

**박준현**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베리칩 (Verichip)

베리칩은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체에 이식하는 마이크로 칩이다. 베리칩에는 개인 확인을 위해 16자리의 고유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 외부 스캐너에서 신호가 오면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 무선으로 관련정보를 읽고(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이를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네트워크 상에서 확인한다. 이 베리칩은 의료현장에서 투약, 처치, 시술 시 개인 확인과 관련된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고 치매환자나 의식을 잃은 환자, 정신지체자 등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신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있다. 이에 2004년 미국 FDA에서는 베리칩을 제2군의 의료기기(Health Information Microtransponder System)로 허가하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베리칩의 사용은 사회적, 윤리적, 신학적 측면에서 많은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본 글에서는 베리칩과 관련된 논란들을 정신의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베리칩과 정신과적 증상**
**(Verichip and psychiatric symptom)**

먼저 베리칩 논란과 관련 가능한 모든 정신과적 증상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베리칩이 이식되고 의료목적 외에 개인 식별이나 결제의 수단에도 베리칩이 사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이때에 베리칩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정신과적 증상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불안이다. 개인의 행동, 위치 그리고 취향이 모니터링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불안을 유발한다. 또한 기존의 RFID 방식을 사용한 전자여권이나 교통카드 등에 대해서도 해킹, 복제, 조작 가능성이 수 차례 제기되었으므로 자신을 증명하는 신호도 복제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식된 베리칩의 이상조직반응, 발암물질일 가능성, 신체 다른 곳으로의 베리칩 이동, MRI 촬영시의 신호간섭 등 잠재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위협도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높은 불안 수준을 보이는 개인의 불안장애나 망상장애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망상장애나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의 경우 이식된 칩에 의해 염탐, 미행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 혹은 베리칩을 통해 조정되고 있다는 조정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베리칩이 정신질환의 발병에 기여를 유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정신질환의 증상이 베리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세시대에는 종교와 관련된 망상이 많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청장치나 악성코드, 해킹, 유명 연예인, 미디어, 정보기관 등이 망상의 내용으로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시대와 속한 문화, 배경 등에 따라 망상(delusion)의 내용도 변화될 수 있다.

**베리칩과 네트워크 (Verichip and network)**

베리칩은 한 개인을 인식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시대에 따라 한 개인을 인식하는 방법도 변화되어 왔다. 산업화 이전에는 가족과 신분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기에 개인의 신분, 소속, 배경이 그 사람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폭도 넓지 않아 개인별로 직접 경험하고 그 사람을 판단할 기회도, 시간도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로는 다수의 사람들을 짧은 시간동안 만나는 사회가 되어, 지금 타인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중요해지고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능력이 그 사람에 대한 규정 근거가 되었다. 스펙이나 외모, 명품 등이 나를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외향적인 것이 미덕이 되었다. 나아가 많은 대인관계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면서 네트워크에 공개된 나의 모습이 나를 말해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한 개인의 SNS ID만 알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과거와 현재의 일상과 취향 등을 깊이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부가적인 도움을 받는 편의성의 측면 외에 개인의 정체성에서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과거의 나를 내가 기억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상에 담아놓게 되고 매일의 일상도 네트워크를 통해 주위 사람들 그리고 불특정 다수와 나눈다. 나아가 현재와 과거의 데이터들을 근거로 미래의 나의 판단을 제안 받기도 한다. 베리칩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개인의 인식과 정체성에서 네트워크의 비중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 있을 때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소외되고 격리된 느낌을 가지며 불안해진다. 소셜네트워크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을 네트워크 의존 혹은 네트워크 중독이라 이름 붙여야 할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베리칩이 네트워크 접속과 관련된 ID 등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과 소외감이 커지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이다.

**베리칩의 선택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
**(psychologic factors regarding to verichip)**

이미 에리히 프롬은 고립을 피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마음을 경계한 바 있다.

오랜 노력 끝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성취하여 독립성과 합리성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자유로 인하여 고립되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자성과 개인성에 바탕을 두고 적극적으로 자유를 실현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부담을 피해서 다시 의존과 복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한 의존과 복종이 독재자에게 자유를 맡기는 전체주의를 낳게 되며 개인은 사물화, 도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립과 무기력이 커져 가며 많은 교류가 통제하기 쉬운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에리히 프롬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거대한 세력의 강압이 아니라도 베리칩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점점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우선적 가치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생명에 대한 경시 등 여러 윤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베리칩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 사회는 '불안을 권하는 사회'이다. 각종 괴담과 공포가 도처에 있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미래가 불안해서 열심히 일하며 사건, 사고, 재해, 질병 등 여러 불안 요소들 때문에 안전을 위한 소비를 한다. 여기에 유괴, 실종 등 사건 사고와 관련된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는 전 사회가 안전에 집착하게 하여 인권이나 윤리적 문제를 억누르는 원인이 된다.

**베리칩과 종말론 (Verichip and Eschatology)**

베리칩 논란의 핵심은 결국 종말론과 닿아 있다. 신학적 논의를 최대한 배제한 채 정신과적 관점으로 베리칩의 종말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무기력이 팽배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한 열광으로 심리적 무기력이 표출될 수 있다. 또한 여러 현상들을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을 베리칩에 잘못 투사(projection)시키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특정 종파나 세력이 위기론을 통하여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종말과 관련하여 베리칩의 수용 여부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의 다양함과 모호함을 견딜 수 없어 이를 단순화시키는 전치(displacement: 생각, 감정 등을 수용가능한 다른 것으로 바꿔 놓는 것) 현상일 수도 있다. 즉, 베리칩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대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며 구원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결론 (Conclusion)**

베리칩과 관련된 신학적 논쟁을 떠나 네트워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자유를 반납하는 전체주의나 편안하고 효율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베리칩은 불안과 망상 등의 정신과적 증상과 연결될 수 있으며 베리칩 논쟁과 관련하여 불안, 투사, 전치 등의 심리적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

**박준현**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이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로 있으며 사회정신의학 학회지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정신분석학회, 대한조현병학회 정회원, Research Trainee in Mayo Clinic Molecular Pharmacology Experimental Therapeutics이다.

# 베리칩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이승구 (합신대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부소장)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법이 미국 국회를 통과했다.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에 서명하면서 그동안 가난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3,200만 명이 정부 보조 등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 법안에는 미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삽입하는 기구(device that is implantable)에 대한 언급이 있다. 미국 국민이라면 유사시 병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료 정보 등이 담겨 있는 베리칩(verychip=verification chip), 즉 일종의 무선식별(RFID) 장치를 몸에 이식받을 것이라고 한다. NBC는 "2017년까지 우리 모두 몸에 칩(chip)을 이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보하였고, 2013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베리칩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스(Applied Digital Solutions, www.adsx.com)사가 선보인 마이크로칩(microchip)이다. 앞으로 여기에 GPS 기능을 추가하면 개인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베리칩은 사람의 인체 안에 미세한 마이크로칩을 주입